

# 90년대 한국노동자들의 통일의식\*

신광영 한림대 교수, 사회학/본지 편집위원  
장하진 충남대 교수, 사회학/본지 편집위원  
김동춘 서울대 박사과정, 사회학/본지 편집위원  
장흥근 서울대 박사과정, 사회학

## 1. 서론

1987년 이후에 폭발적으로 활성화된 노동운동은 한국사회 변혁운동에 중심으로 등장하였다. 90년대 들어서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은 여러 가지 형태로 분화되면서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러 가지 운동이 중첩적으로 전개되기도 하지만, 여러 운동단체들간의 독자적인 관심과 이해로 인해서 87년 이전에 비해서 운동단체들의 역량이 분산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대사회에서 각종 운동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운동에 대한 여타 사회집단들의 지지여부에 크게 달려 있다고 볼 때, 수적으로 가장 많고 또한 가장 새롭게 사회정치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의식과 행동이 여러 운동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북방외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구권 외교와 대북한

---

\* 이 조사는 문교부 학회 학술지 지원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외교는 정부주도하에 다른 사회집단들의 교류를 여러 가지 형태로 제한하면서 국민들의 염원인 통일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왔다. 북한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정부가 독점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대상으로 한 재야의 운동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한계를 깨뜨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희생이 이뤄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89년초부터 시작된 공안정국은 바로 통일문제와 관련된 재야의 독자적인 교류시도를 빌미로 삼아서 89년 봄 노동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으로 이어졌다.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과 현대중공업 파업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이 두 사건이 사회운동의 분화와 운동단체들의 이해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주장도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었다.

본 조사는 노조활동에 적극적이거나 혹은 적극적이지 않은 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의 의식이 통일과 관련된 인식과 의식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노동자들의 통일인식과 의식이 한국 사회 국민 일반의 통일인식이나 의식과 어떤 차이점을 과연 지니고 있는가, 혹은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인가? 통일운동과 노동운동의 선차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다른 견해의 근거가 무엇이며 경험적으로 타당한 견해들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조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핵심적인 관심사는 노동자들의 계급의식과 통일의식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과연 어떠한 부류의 노동자들이 통일의식과 계급의식 차원에서 다른 부류의 노동자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부류란 노동계급 내의 집단을 의미하며, 이때 집단은 공식적인 집단이 아니라 사회적 범주로서의 집단을 의미한다.

## 2. 자료

여기에서 사용된 자료는 1990년 12월 20일부터 1991년 1월 15일까지 경인지역과 마산·창원지역에서 면접원이 직접 피면접원과 인터뷰를 통해서 혹

은 피면접자에게 설문지가 배분된 후에 피면접자가 직접 설문에 대한 응답을 작성하고 사후에 이를 수집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수집되었다. 자료의 총수는 803개로 응답자를 한국노총,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업종별노동조합연맹, 노조 미가입의 4가지로 구분하여 할당표집방법(quota sampling)을 이용하

〈표 1〉 자료의 기본속성

변 수	빈도	퍼센트
성별		
남	554	68.2
녀	254	31.8
연령		
25세 미만	178	23.9
25~30	349	44.4
31~40	218	29.4
41세 이상	32	2.3
교육		
국민학교	6	0.7
중학교	46	5.8
고등학교	445	57.4
전문대학	67	8.5
대학교	218	27.5
직위		
일반노동자	453	57.1
조장	14	1.8
반장	18	2.3
직장	8	1.0
일반사무직	301	37.9
노조가입여부		
가입	686	92.1
미가입	59	7.1
노조유형		
한국노총	108	13.4
전노협	417	51.9
업종별	248	30.9
미가입	30	
계	803	100.0

주: 무응답 제외

여 선택된 기업에서 규모에 따라 10~20명 정도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조사설계상에서 계획된 비율로 자료가 수집되지 않았다. 특히 한국노총 산하의 노동자들에게 할당된 설문지의 회수율이 매우 낮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한국의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적인 통일의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노총 산하의 노동자들이 적게 포함되었다는 것이 자료 분석과 해석에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즉, 이 조사가 한국의 노동자 일반의 의식을 대표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나, 노동자 내 다양한 범주, 집단 간의 비교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고 노동자와 일반 사회성원들 사이의 비교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본 자료상의 또 다른 특징은 경인지역과 마산·창원지역에 한정된 조사였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이 자료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들을 한국노동자 일반의 특징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체로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경인지역과 마산·창원지역의 노동운동이 다른 지역의 노동운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장하여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내용들은 상당 부분 한국의 노동자 일반보다 비교적 높은 의식수준을 나타낸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특히 이 조사에서 노조 미가입 노동자들의 비율이 매우 적다는 점에서 현재 약 77%를 차지하고 있는 미가입 노동자들의 비율을 고려한다면 여기에서 밝혀지는 결과들은 나머지 23%의 노조 가입 노동자들의 특징을 대체로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 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구분해내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왜냐하면 노조 미가입 노동자들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 3. 분석결과

#### 1) 노동자들의 대북한 인식과 통일후의 사회체제에 대한 선호

먼저 이 자료를 통하여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은 첫째,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수준이 대단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생활수준, 교육제도, 의료제도 등의 생활상태에 대한 지식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전체 응답자의 6.1%에 지나지 않았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8.7%가 동의하고 있지만, 통일에 기초가 되는 상호이해의 기반이 대단히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자료를 통하여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북한사회의 사회실태에 관한 인식의 정도와 현저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정비례한다는 것이다. 남·북한 통일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토론하는 경우가 많을수록 북한사회의 생활상태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표본크기 803개 중에서 유효한 사례인 776개 중에서 북한에 대해서 잘 안다고 대답한 49명 가운데 48명이 남·북한 통일문제에 대해서 가끔 혹은 자주 토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북한사회실태의 인식 정도와 통일후의 사회에 대한 교차표

북한사회 인식 정도	통일후의 사회				
	남한식	북한식	제3의 사회	생각안해 봄	
전혀 모른다	1 (14.3)	0	16 (57.1)	8 (28.6)	28 (3.5)
거의 모른다	66 (25.9)	5 (2.0)	165 (64.7)	19 (7.5)	255 (32.3)
조금 안다	130 (28.4)	4 (0.9)	291 (63.5)	33 (7.2)	458 (58.0)
잘 안다	20 (41.7)	5 (10.4)	22 (45.8)	1 (2.1)	48 (6.1)
매우 잘 안다	1 (100.0)	0	0	0	1 (0.1)
	221 (28.0)	14 (1.8)	494 (62.5)	61 (7.7)	790

\* 괄호 안은 퍼센트

그러나 북한에 대한 지식의 수준이 통일 후의 한국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표 2〉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점은 통일후의 사회가 남한식도 아니고 북한식도 아닌 제3의 사회를 선호하는 것이 전체 응

답자의 62.5%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후의 사회체제로서 남한식 사회체제를 선호한 응답자는 전체의 28.0%에 불과하며, 북한식 사회체제를 선호한 응답자는 1.8%였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7.7%를 각각 차지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먼저 현재의 남한식 사회체제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통일후의 새로운 사회체제로서 북한식 사회체제를 선호한 노동자들이 대단히 적어 제3의 체제에 대한 갈망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을 잘 안다고 대답한 노동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식 사회체제를 통일후의 사회체제로서 선호하는 경우는 북한 사회실태를 잘 안다고 응답한 노동자들 중의 10.4%였고 남한식을 선호하는 노동자가 41.7%, 제3의 사회체제가 45.8%로 나타났다. 북한 사회실태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낮은 경우보다 통일후의 사회체제로서 남한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이었고 또한 북한식을 선호한 경우도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1990년 12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설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북한의 체제를 수용하더라도 빨리 통일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지지한 비율이 8.2%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노동자들의 경우 일반국민 평균보다 북한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체제를 수용 혹은 포섭하는 것과 체제를 선호하는 것은 대단히 다르므로 기존의 조사결과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조사대상 노동자들 중에서 적어도 반통일적인 의식은 아니지만, 강한 반북의식이 노동자들에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한사회를 잘 아는 사람일수록 남한사회를 선호하는 경향은 높아지지만, 전반적으로 남한사회와 북한사회를 선택하는 사람의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이고, 그것은 노동자들이 현재의 남·북한 사회 모두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노동자들의 조직가입 유형을 중심으로 통일의식과 계급의

1) 서울대학교 부설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전환기의 한국사회: '90 국민의식조사』, 40쪽.

식 차이의 유무를 살펴본다. 표집된 노동자들을 여러 가지 사회적 범주들로 구분하여 통일외식과 계급외식의 편차를 보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특성들과 자료에 나타난 노동자들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국민 일반의 특성과 노동계급의 특성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물론 엄밀한 통계적인 분석은 노동계급과 비노동계급 간의 차이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가능하나, 대부분의 국내 자료들에서 이러한 분석을 가능케 하지는 않고 있다.

## 2) 노동자들의 계급외식과 통일외식과의 관계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조합 조직과 역량은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그 이후 전반적인 사회, 정치의 보수화가 진행되었으나 노동자들의 대사회 인식은 87년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매우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과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 사이에 계급외식의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먼저 계급외식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5개 진술과 1개 질문에 대한 견해를 노동자들에게 물었다: 첫째, 일하고 계시는 기업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고용자들이 사장이 없이도 기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 둘째, 한국사회에서 가난한 것은 개인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셋째, 기업주들이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을 희생시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고 있다. 넷째, 파업중 기업이 다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다섯째, 정부가 노사관계에서 기업의 편만을 들고 있다. 여섯째, 지난 봄 현대 중공업 파업(골리앗 농성) 소식을 들었을 때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 중에서 앞의 다섯 가지 진술에 대한 견해는 완전 동의(1), 약간 동의(2), 약간 반대(3), 절대 반대(4)의 리커트 스케일로 답을 하도록 하였다. 여섯번째 질문에 대한 견해는 적극적 지지(1), 대체로 지지(2), 대체로 반대(3), 전적으로 반대(4), 특별한 견해는 없었다(5)의 5가지 답에서 선택하도록 한 후, 자료처리 과정에서 특별한 견해가 없는 경우 5 대신 중앙값

이자 평균인 2.5를 부여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동의를 보인 질문은 네번째 질문인 파업기간중 기업이 파업 대체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자주관리나 노동통제와 관련된 첫번째 질문에 대한 동의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특징적이고, 경제적 이해와 관련된 네번째 질문이 강한 동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표 3〉 노동조합 유형에 따른 5개 질문에 대한 노동자들의 견해(ANOVA)

조직유형 \ 질문	(1)	(2) <sup>1)</sup>	(3)	(4)	(5)	현종파업
전체표본평균	2.155 (.887) <sup>a)</sup>	2.995 (.880)	1.586 (.666)	1.318 (.693)	1.365 (.610)	1.823 (.757)
한국노총	2.2547 (.895)	2.7664 (.957)	1.6759 (.681)	1.5463 (.911)	1.5463 (.661)	2.1262 (.786)
전노협	2.0561 (.887)	3.1329 (.866)	1.4636 (.640)	1.2136 (.615)	1.2633 (.553)	1.6134 (.707)
업종별	2.2408 (.875)	2.9476 (.801)	1.7126 (.633)	1.3508 (.631)	1.4194 (.6116)	1.9798 (.703)
미가입	2.4667 (.860)	2.3000 (.915)	1.9000 (.885)	1.6667 (.959)	1.6667 (.959)	2.3000 (.877)
리커트 스케일	1-4	1-4	1-4	1-4	1-4	1-4
F-test <sup>3)</sup>	4.179***	12.816***	10.873***	10.063***	10.475***	25.952***
F-test <sup>4)</sup>	4.325**	9.117***	13.130***	11.450***	12.221***	

주 1) 두번째 질문을 제외하고는 수치가 낮을수록 계급의식이 강함을 나타낸다.

주 2) 괄호 안은 표준편차.

주 3) F-test는 4가지 노동자 조직가입 유형에서 각 노동자집단간의 평균이 모두 같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측정치이다. F-test값이 크다는 것은 대체로 각 집단의 평균값이 표준편차를 고려 할지라도 동일하다는 것을 부정하게 한다.

주 4) F-test는 노조미가입 노동자들을 제외한 3가지 유형의 노동자집단들간의 평균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치이다.

\*\*\*, P < 0.01, \*\*, P < 0.05

5개의 질문에 대한 견해에서 조직유형별로 보면, 전노협 가입 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이 가장 계급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노동자 일반이 파업대체인력의 고용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정부가 기업의 편에서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있다고 봄으로써 정부에 대한 불만이 대단히 강하



게 존재하고 있다. 1에서 4까지의 리커트 스케일로 각 설문이 측정되었기 때문에 평균은 2.5이며, 2.5보다 적거나(진술 1,3,4,5의 경우), 혹은 2.5보다 큰 경우(진술 2의 경우)에 계급의식이 평균적인 수준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 봄 현대중공업 파업에 대한 지지여부에서도 전노협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폴리앗 농성에 대해서 대체로 지지를 보내고 있다. 5개의 진술과 1개의 질문에 대한 견해에서 나타난 계급의식의 정도는 전노협, 업종별, 한국노총, 미가입 순으로 나타나 전노협에 가입되어 있는 노조들의 노동자들 중에서 계급의식이 가장 강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섯째 질문인 “정부가 노사관계에서 기업의 편만 들고 있다”는 항목에 대해 전노협 소속 노동자들은 1.2633의 평균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어서 완전동의(1)에 매우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1.5463, 업종별은 1.4194, 미가입은 1.667로 약간동의(2)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계급의식과 조직유형에서 발견되었던 매우 일관된 유형은 통일에 관한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먼저 통일에 관한 관심의 정도를 보여주는 통일에 관한 생각이나 토론을 자주 갖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업종별 노조의 노동자들이 가장 적극적이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노조의 노동자들은 1 “대단히 많다”, 2 “가끔 있다”, 3 “거의 없다”, 4 “전혀 없다”의 답 중에서 가장 낮은 1.9150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다른 노조연맹 가입자나 미가입자에 비해서 통일에 관해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한국노총 산하의 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전노협 노동자들에 비해서 통일문제에 관한 관심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것은 평균적으로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에 관한 열망과 통일의 당위성이 강하게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유형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할 수 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러한 의미의 ‘관심’은 결정적인 국면에서는 다른 이해관계에 의해 무너질 수도 있는 유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 통일문제와 관련된 항목의 노조조직 유형별 비교분석(ANOVA)

조직유형	설문 (1)통일문제 관심도	(2) 통일의 필요성 인식	(3)정부통일 정책 정책 지지도	(4) 통일의 정치적 이용 남한/북한	이용
전체표본평균	1.9962 (.565)	1.2236 (.478)	2.4295 (.793)	1.1761 (.315)	1.2375 (.330)
한국노총	1.9346 (.5189)	1.2523 (.478)	2.5943 (.799)	1.2870 (.411)	1.2315 (.351)
전노협	2.0602 (.617)	1.2228 (.445)	2.4562 (.810)	1.1731 (.303)	1.2795 (.341)
업종별	1.9150 (.499)	1.1789 (.405)	2.2583 (.725)	1.1133 (.254)	1.1680 (.287)
미가입	2.0000 (.371)	1.5000 (.572)	2.8500 (.779)	1.3333 (.379)	1.2500 (.341)
리커트 스케일	1-4	1-3	1-4	1-4	1-4
F-test	3.9427***	0.0575	8.445***	7.994***	5.472**

주 1) F-test는 미가입 노동자집단을 포함한 것임.

\*\*\*;  $P < 0.01$ , \*\*;  $P < 0.05$

〈표 4〉가 보여주듯이,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한국노총 산하의 노동자들(2.5943)과 미가입 노동자들(2.8500)이 평균 이상의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2.5 이상), 전노협(2.4562)과 업종별 노조 산하의 노동자들(2.2583)은 평균 이하의 지지를 보내고 있다.<sup>2)</sup> 특히 업종별 노조 산하의 노동자들이 정부의 통일정책에 가장 낮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것은 남한 정부나 북한 정부가 통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 노조 산하의 노동자들은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통일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견해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물론 노동자들 모두가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업종별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가장 강하게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두드러진 특징은 업종별 노조에 가입해 있는 노동자들이 통일문제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고 또한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

2) 지지도는 1 “전적으로 지지”, 2 “대체로 지지”, 3 “대체로 반대”, 4 “전적으로 반대”로 측정되었다.

의지에 대해서 일관되게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계급의식을 살펴보았을 때 나타난 결과와는 매우 다른 것이다. 계급의식과 관련하여 전노협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의식이 다른 노조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들과 일관되게 차이를 보였다는 점을 주시한다면, 통일외식과 관련하여 밝혀진 점은 업종별 노조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통일외식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 점은 업종별 노조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 학력이 높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화이트칼라나 고학력자들이 정치적 민주화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통상적인 견해를 염두에 두고 볼 때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계급의식과 통일외식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3) 통일운동과 노조운동

〈표 5〉는 90년 5월 풀리웃 고공농성으로 알려진 현대중공업 파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지 정도와 89년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이 노동운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교차시켜 파업지지와 주관적 평가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현대중공업 파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태도를 표명한 노동자들이 문목사 방북사건이 노동운동에 끼친 영향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자. 현대중공업 파업에 적극적 지지를 보낸 299명의 노동자들 중에서 147명인 49.2%가 긍정적인 것으로 응답했다. 문목사 방북사건이 노동운동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하는 노동자들은 단지 14%에 지나지 않았고, 전혀 무관했다고 보는 노동자들도 19.7%나 되어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현대중공업 파업에 대체적인 지지를 보인 노동자들 가운데에서는 문목사 방북이 노동운동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매우 줄어들어 29.3%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가 나쁜 영향을 미쳤거나, 무관했다거나 혹은 잘 모르겠다는 대답의 비율이 높았다. 현대중공업 파업에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노동자들의 경우 나쁜 영향을 끼쳤다는 견해가 많았다. 결국 현대중공업 파업에 대한 지지가 낮은 노동자일수록 문목사 방북

이 노동운동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가 많았다. 이 중 문목사 방북이 노동운동에 끼친 영향에 대해 무관했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이 47%를 차지하고 있어서 통일운동과 노동운동의 긴장에 대해 많은 노동자들은 별다른 의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파업지지 노동자들의 49%가 문목사 방북이 노동운동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은 이들의 계급의식과 통일의식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현대중공업 파업에 대한 태도와 문목사 방북이 노동운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

현대중공업 파업에 대한 태도	문목사방북이 노동운동에 끼친 영향에 대한 평가				계
	좋은 영향을 주었다	나쁜 영향을 주었다	전혀 무관했다	잘 모르겠다	
적극적 지지	147(49.2)* (56.1)**	42(14.0) (27.1)	59(19.7) (31.9)	51(17.1) (28.0)	299 38.1
대체로 지지	88(29.3) (33.6)	59(19.7) (38.1)	77(25.7) (41.6)	76(25.3) (41.8)	300 38.3
대체로 반대	12(14.0) (4.6)	29(33.7) (18.7)	25(29.1) (13.5)	20(23.3) (11.0)	86 11.0
절대 반대	0	8(47.1) (5.2)	6(35.3) (3.2)	3(17.6) (1.6)	17 2.2
잘 모르겠다	15(18.3) (5.7)	17(20.7) (11.0)	18(22.0) (9.7)	32(39.0) (17.6)	82 10.5
계	262 33.4	155 19.8	185 23.6	182 23.2	784 100.0

Chi-square=83.72(P<0.000)

문목사 북한방문 이후에 전개된 공안정국하에서 통일운동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거나 소극적이었던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대거 구속되는 ‘민주화의 역전기’가 있었고 지금도 그 후유증이 도처에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문목사의 방북이 노동운동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노동자들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반공이테올로기에 젖어 있는 노동자들도 있었지만 선진적인 노조운동가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문목사 방북이 노동운동에 나쁜 영향을 끼

쳤다고 평가한 노동자들을 다시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에 지지를 보내는 노동자들과 반대의사를 표명한 노동자로 나누어 이들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6〉 문목사 방북이 노동운동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한 응답자중 현중파업 지지/반대 노동자들의 특성 비교

집단\변수	연 령	교 육	성 별	통일관심도	계급의식수준
지지집단	1.960(.549)	3.336(.92)	1.294(.456)	1.891(.488)	1.534(.372)
반대집단	2.270(.838)	3.865(1.00)	1.243(.435)	2.216(.534)	2.389(.424)
무관심	1.867(.743)	3.375(1.08)	1.418(.507)	2.000(.500)	2.142(.377)

\* 연령은 1~4등급으로 구분하여 1은 가장 연소하고 4는 가장 연장이다 교육 역시 1~5등급으로 구분하여 1은 저학력이고 5는 가장 고학력이다 성은 남자는 1, 여자는 2로 하였다. 고학력이다 통일관심도는 1이 가장 높은 관심이고 4가 가장 낮은 관심이다 계급의식은 앞의 표와 동일하다 즉, 1에 가까울수록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6〉은 세 집단간의 연령, 교육정도, 성별분포, 통일관심도, 계급의식 수준에서의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지지집단은 반대집단에 비해 연령이 적고, 교육수준도 낮지만,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높으며, 계급의식도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7〉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참여도와 통일운동의 참여정도에 대한 의견

		노조활동참여 정도				계
		대단히 적극적	비교적 적극적	비교적 소극적	불참	
통일운동 참여 정도	적극 참여를 주장	88	95	29	4	216
		40.7	44.0	13.4	1.9	37.3
		59.5	37.7	20.7	10.3	
	보통 참여를 주장	47	134	100	30	311
		15.1	43.1	32.2	9.6	53.7
		31.8	53.2	71.4	71.4	
	소극적 참여 를 주장	13	23	11	5	52
		25.0	44.2	21.2	9.6	9.0
8.8		9.1	7.9	12.8		
계	148	252	140	39	579	
	25.6	43.5	24.2	6.7	100	

〈표 7〉은 노동자들의 통일운동에 참여정도에 대한 의견과 노조활동에의 참여정도를 교차시켜 양자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통일운동참여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노조활동에 대단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148명의 노동자 중 88명인 59.5%가 노동자도 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매우 높은 비율이며, 노조활동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통일운동참여를 지지하는 비율이 37.7%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적어도 노동자들의 의식에서 노조운동과 통일운동 간의 차별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 4) 노동자들의 일상의식 속에서의 통일의식

실제로 노동자들의 정치적, 집단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특정한 의식이 여러 다른 차원의 의식들과 공존하는 가운데 얼마나 강하게 우선적인 위치를 차지하는가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서 현저하게 드러나는 의식만이 행위를 결정짓는 의식이기 때문에 질문을 통해서 물었을 때만 나오는 답은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특정한 의식이 어느 정도 돌출되어서 존재하고 다른 여타의 의식을 압도하는가가 개인의 행위를 결정짓게 된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일상의식 속에서의 통일의식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한국사회에서 긴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서열에 따라 기입하도록 설문을 만들어 피조사 대상자가 생각하는 긴급한 해결을 요구하는 한국사회의 과제를 차례로 3개 선택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주어진 선택은 지역갈등해소, 환경공해예방, 남북통일 달성,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등이었다. 우선 여기에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택된 것과 그 다음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택된 두번째 선택을 교차시켜 보았다. 〈표 8〉은 제1의 선택과 제2의 선택을 교차시켜 선택의 짝을 보여주고 있다.

〈표 8〉 한국사회에서 긴급히 해결해야 할 두 가지 과제

제 1 의 선택	제 2 의 선택					계
	경제적 불평등 해소	민주화	남북통일	환경공해 예방	지역갈등 해소	
지역갈등 해소	24(52.2) (11.9)	17(37.0) (6.1)	1(2.2) (0.8)	4(8.7) (5.3)	0	46 (6.0)
환경공해 예방	13(26.0) (6.5)	21(42.0) (7.5)	9(18.0) (7.1)	0	7(14.0) (8.4)	50 (6.5)
남북통일	30(34.5) (14.9)	47(54.0) (16.8)	0	6(6.9) (7.9)	4(4.6) (4.8)	87 (11.4)
민주화	134(52.5) (66.7)	0	78(30.6) (61.4)	12(4.7) (15.8)	31(12.2) (37.3)	255 (33.3)
경제적 불평등해소	0	194(59.1) (69.5)	39(11.9) (30.7)	54(16.5) (71.1)	41(12.5) (49.5)	328 (42.8)
계	201 (26.2)	279 (36.4)	127 (16.6)	76 (9.9)	83 (10.8)	766 (100.0)

한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제1의 과제로는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가 42.85%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그 다음이 정치적 민주화로 33.3%로 나타났다. 남북통일의 달성을 제1의 과제로 꼽은 노동자들은 11.4%로 나타나 지역갈등해소나 환경공해예방보다는 더욱 시급한 해결과제로 인식되었다. 이것이 현재 한국노동자들 의식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들일 것이고 또한 이러한 평가가 노동자들의 요구와 행동을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는 기본적으로 빈곤이나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인상투쟁의 형식으로 현재화되는 의식이고 정치적 민주화는 각종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노동탄압과 자본의 착취를 비호하는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의 민중통제를 의미할 것이다. 정치권력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이루기 위한 민주화 요구는 아직도 노동자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과제이다. 특히 여기에 사용된 표본에서 전노협 가입 노동자들이 대단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탄압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정치권력의 민주화 요구는 즉각적인 생존권 확보와 관련된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에 남북통일을 제일 중요한 현안 과제라고 꼽은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업종별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들이다. 업종별 노조

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들 중에서 13.4%가 통일문제를 한국사회의 선결과제로 꼽았다. 그 반면에 노총 가입 노동자의 11.7%, 전노협 가입 노동자의 10.4%, 미조직 노동자의 6.7%가 통일성취를 한국사회의 선결과제로 꼽았다. 이들에게 눈앞에 놓여 있는 경제적인 빈곤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기 때문에 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정치적 요구로서 남북통일의 달성을 제1의 과제로 선택한 듯하다.

노동자들 중에서 두번째로 중요한 한국사회의 해결과제로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정치적 민주화(36.4%)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제1과제로 선택한 사람들은 민주화를 제2의 과제로 꼽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59.1%). 그 다음이 공해예방(16.5%), 지역갈등해소(12.5%), 남북통일(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한국사회의 과제로 민주화를 선택한 노동자들은 제2의 선택으로서 경제적 불평등을 가장 많이 꼽았고(52.5%), 그 다음이 남북통일의 달성(30.6%), 지역갈등해소(12.2%), 환경공해예방(4.7%)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이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과제는 주로 체제간의 문제이기보다는 체제내의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와 정치적 민주화의 달성이 노동자들이 판단하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남북통일에 대한 요구도 대단히 강하게 성장한 것이 틀림이 없는데 이는 경제적 불평등이나 정치적 민주화 대신에 한국사회 제1의 과제로서 인식된 남북통일이 11.4%로 적지 않음에서 알 수 있다. 정치적 민주화를 제1의 선결과제로 꼽은 노동자들 중에서 30.6%가 남북통일을 제2의 선결과제로 꼽아 남북통일에 대한 요구가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의 해결과제에 대한 응답결과를 유형화하여 각 유형응답자들의 특성을 살펴본 것이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9>는 한국사회의 과제 중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정치적 민주화, 남북통일의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제1, 제2 과제로 선택한 사람들을 가능한 여섯 가지 조합으로 나누고 각 집단의 특성을 연령, 교육, 가구소득, 통일관심도, 계급의식의 순으로 살펴본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통일을 최우선과제로, 민주화를 그 다음



〈표 9〉 한국사회의 해결과제에 대한 응답유형별 노동자들의 특성 비교

응답유형 / 변수	연령	교육	가구소득	통일관심도*	계급외식 수준*
불평등- 민주화	1. 880(.590)	3. 584(1.02)	2. 079(.775)	1. 969(.558)	1. 714(.517)
불평등- 통일	1. 811(.616)	3. 395(1.08)	1. 968(.752)	1. 949(.724)	1. 722(.479)
민주화- 불평등	1. 939(.477)	3. 639(.96)	2. 099(.762)	1. 985(.477)	1. 571(.423)
민주화- 통일	1. 816(.626)	3. 584(.91)	2. 000(.817)	1. 897(.525)	1. 537(.331)
통일-불 평등	1. 867(.434)	3. 600(.89)	2. 304(.765)	1. 900(.548)	1. 806(.468)
통일-민 주화	1. 848(.470)	3. 783(.99)	2. 098(.831)	1. 761(.603)	1. 240(.387)

\* 통일관심도와 계급외식수준은 1에 가까울수록 높다.

과제로 선택한 응답자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달리 교육수준이 높고 계급외식도 높다는 점이다. 이는 바꾸어 말해서 교육수준이 높거나 노동자로서의 계급외식이 높은 노동자들이 통일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4. 결론

지금까지의 분석을 대체로 종합해보면 우리 사회의 노동자 중에서 한국노총 산하의 조직노동자와 전노협 산하의 조직노동자, 업종별 노조연맹 산하의 노동자, 그리고 노조 미가입 노동자들 간의 계급외식은 유의미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급외식의 측면에서는 전노협 산하의 조직노동자들이 단연 앞서 있고 미조직 노동자들이 가장 후진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통일의식의 측면에서는 업종별 노조에 속한 노동자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정부의 통일정책에 가장 비판적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 파업에 대한 지지여부와 문목사 방북이 노동운동에 미친 영향을 교차시켜서 분석한 계급의식과 통일의식의 상관관계에서는 대체로 계급의식이 높은 노동자일수록 통일의식도 높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는 내릴 수 있다. 노조운동에 적극적인 사람일수록 통일운동에의 참여를 지지하는 경향이 높은 것도 이러한 점을 더욱 부연해주고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문목사 방북을 부정적으로 보는 파업 지지자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통일운동과 노동운동의 긴장이 ‘현실’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아직 통일운동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는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에서 매우 낮은 상태에 있고, 대안적인 사회체제의 상에 대해서도 매우 애매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설사 이들이 당위적으로 통일문제에 높은 관심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통일운동의 주체로 등장하기에는 매우 미숙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동·서 독일의 노동자들이 서독의 급진적인 흡수통합전략에 쉽게 굴복한 점을 생각해보는 때 기득권 세력 주도의 통일논의와 대북외교를 민중적 대안으로 비판해나가고, 장차 그 주도권을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 ‘존재조건상’ 가장 절실하게 통일을 원할 수밖에 없는 민중, 특히 노동자들이 장악해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운동 지도부가 통일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과 전략, 노동자 교육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 글은 극히 어려운 물적, 인적 조건 속에서 단기간에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음을 공동연구자들은 자인하고 있다. 개념적으로는 과연 여기서 제시한 질문지로서 통일의식과 계급의식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가, 과연 통일의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분석의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공동연구자들은 이것이 본격적인 조사를 위한 하나의 탐색적인 조사라고 생각하고 있다.